

# 목포시 서민 일자리 6000개 만든다

### 사회복지 분야 등 190개 사업에 594억원 투입

### 체계적 고용창출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목포시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4·4분기 기준 목포시의 경제활동 참가인구는 10만3000명으로, 고용률은 56.1%, 실업률은 2.1%(전국 평균 실업률 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고용률은 0.9% 소폭 상승했고, 실업률은 1.2% 감소한 것이다.

시는 지역별 입지조건, 산업기반 등 다른 경제지표와 인구 조건 등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일자리 공시제의 효율적 운영 ▲신성장 동력 산업 적극 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분야별 일자리 사업량은 총 190개 사업 6226명(명), 594억을 투입하게 된다. 공공 일자리 창출분야 39개사업(751명·59억)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54개사업(4313명·396억원) ▲관광·경제분야 15개사업(159명·32억원) ▲교육·문화분야 22개사업(282명·56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지원 17개사업(205명·3억7000만원) ▲전략산업 기업유치 일자리 11개사업(516명·42억원)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사업 26개사업(990명·2억5000만원) ▲직업훈련분야 3개사업(520명·2억) 등이다.

시는 신성장 5대 동력산업(조선·세라믹·신재생에너지·고기능성 수산식품·해양레저 장비산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5년 대양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5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

나고 400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라믹 전용산단은 2013년까지 마무리 되면 429명의 일자리와 1689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향 매립지에 들어서게 될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이 건립되면 945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283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유발 효과를 유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진도군청 '작은 음악회'

진도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루비콘 밴드 동호회'가 지난 1일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갖고 있다. 군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여는 정례조회에 딱딱하고 정형화된 분위기를 탈피해 변화를 꾀했다. <진도군 제공>

## 해남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운영

### '땅끝 보듬자리' 낮엔 경로당 밤엔 주거시설로

해남군은 관내 독거노인들이 서로 어울려 연중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공동 생활공간으로 활용한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 어울림 공동생활의 집인 '땅끝 보듬자리'를 3개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이달중 신청 접수를 받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업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대상을 선정할 후 개

보수와 장비보강 등을 통해 그룹홈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월 운영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땅끝 보듬자리"는 주간에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야간에는 노인주거복지 시설로서 기능을 다 하게 된다.

한편 해남군 노인인구는 2만385명(전체 인구의 25.97%)이며, 이 중 홀로사는 노인은 7.95%(6237명)를 차지한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목포 도자기 축제 개막

### 6일까지 평화광장 ... 도자기 빚기 체험 등 다채

'제13회 목포 도자기 축제'가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평화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목포시 주최·(사)서남권도자기협회 주관하는 열리는 이번 축제는 '흙으로 빚어진 화합, 불로 구워낸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체험프로그램 행사로는 물레시연, 도자기 빚기 체험, 세라믹 색종이 체험, 압화공예, 양초공예, 목공예, 전통차 시음회 등 7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별기획행사로는 상차림 기획전, 초대작가 워크숍, 도자기 경매관, 중국 도자기 전시 등이 열린다. 축제기간

동안 도자기 및 전통공예 판매관 42개 업체에서 전시판매 행사를 갖는다.

마슬퍼리 앙상블(3일)과 청송문화예술단 공연(5~6일)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목포권의 우수한 생활도자기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도자기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목포 도자기 공모전 대상에 '컨버세이션'

### 생활도자박물관서 전시



'제4회 목포 도자기 전국공모전'에서 임연운(서울시)씨의 작품 '컨버세이션'(Conversation·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작은 김유성씨의 '청자국화문 파형 다기세트', 우수상은 신순미씨의 '오리 주병세트'와 권병수씨의 '이스케이프'(Escape)가 각각 선정됐으며 특선 10명, 입선 86명 등 총 100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 입선작 40여점은 2012 목포도자기축제 기간에 맞춰 3일부터 6일 2일까지 목포 생활도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 전시된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이 이명순(군산시) 교수는 "대상작품은 고도 산업사회에 있어 현대인의 소외와 단절을 현대적인 조형언어와 도자의 특성을 잘 살려낸 수작이다"고 평가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 2012 진돗개 페스티벌

### 오늘 '진돗개의 날' 선포식 6일까지 진돗개 테마파크

제1회 진돗개의 날 기념 '2012 진돗개 페스티벌'이 3일부터 6일까지 진도를 동요리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진도군은 세계적인 명견인 진돗개(천연기념물 제53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3일 오후 2시 '진돗

개의 날' 선포식이 열리며, 우수 진돗개 보호 육성을 위해 매년 10월 말에 열린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는 5일 예선을 거쳐 행사 마지막 날인 6일 결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진돗개 묘기대회와 어질리티 대회, 진돗개 달리기 대회, 진돗개 공연단 공연 등도 행사기간 내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진돗개 찰흙

공예와 진돗개 그리기, 진돗개 디자인 사진 콘테스트, 퍼즐 맞추기, 족자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찰흙 체험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동진 군수는 "진돗개를 대한민국의 국견으로 품격을 높이고, 진도군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전 북

### 군산시 직도 사격장 환경조사

## TNT·중금속 성분 검출

지난 2007년부터 한·미 공군의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군산시 직도 사격장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TNT와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됐다.

공군본부는 지난 2008년도에 이어 2번째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직도 환경조사를 실시, 2일 군산시청에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조사분야는 ▲직도에 대한 토양 환경조사 ▲주민이 거주하는 말도에 대한 소음·진동조사 ▲직도주변 해양 10개소와 해양생물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국방예산 1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용역을 수행한 민·관·군 합동조사단 유선재(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직도사격장 토양에서 TNT가 미국환경청(EPA)에서 정한 우려기준인 IV등급(1.5mg/kg)이상 검출(2008년도 조사에서도 TNT검출)됐다"고 보고했다.

또 "구리, 납 등 중금속은 2008년보다 낮아졌지만 타 공군 사격장보다는 약간 높게 검출돼 지속적인 화학물질과 중금속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환경재난, 사포 생일잔치, 월매집의 서민풍류, 민속장터 등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마련된 춘향시대가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광한루원 잔디밭에서 치러진 '춘향제향'은 제한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확인했다. 방자 체험마당에서는 45여 개 부문에 이르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려 연일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 전통절임류 세계화 센터 가동 순창군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가 2일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군은 절임과 한식민천 세계화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4021㎡(지상 2층)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전주·완주 통합 '가속도'

### 실무협의체 구성 ... 발전 비전 용역 착수

지난달 30일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위한 공동건의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전북도가 빠른 후속조치에 나서며 통합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 김승수 정무부지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주중에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전주·완주 양측에서 과장급으로 15~1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중재는 전북도청에서 맡는다.

이와 함께 전북도-전주-완주군과 전문가, 군민, 시민이 참여하는 발전 비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제정은 1조4630억원(전주 1조

173억원, 완주 4458억원), 면적은 1027km로 늘어났다.

통합 도시개발에 의한 공간구조 재편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 광역시 단위의 성장거점과의 연계성이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완주군민과 일부 정치세력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직접 중재에 나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의사는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결(시민의회·도의회)을 통해 결정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173억원, 완주 4458억원), 면적은 1027km로 늘어났다.

통합 도시개발에 의한 공간구조 재편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 광역시 단위의 성장거점과의 연계성이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완주군민과 일부 정치세력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직접 중재에 나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의사는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결(시민의회·도의회)을 통해 결정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귀농 귀촌센터·농기원 지원업무 통합

전북도가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농업기술원의 지원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종합상담을 위해 전북 마을만들기협력센터 내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현장 예로상담 해결, 멘토 육성, 전문가 상담 등 귀농 시작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자에게는 상담·알선·교육·홍보 등 종합 안내도 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어린이날 철새조망대 무료 개방

군산시는 5일 '제90회 어린이날'을 맞아 철새조망대를 무료 개방한다. 철새조망대 무료입장은 초등학교 이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철새조망대는 페이스 페인팅과 탁본체험, 영무새 먹이주기행사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

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다. 철새조망대 11층 전망대와 10층 회전점터에서는 페이스 페인팅·탁본체험·색칠하기 등이 진행되고, 철새조망대 주변에서는 풍선아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4개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정읍시 4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012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사)신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부·(유)두레아미·유기농비건(주) 등 4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012년 상반기 재정지원 공모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역특화 지원사업 등 3개분야에서 3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김생기 시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경찰, 청소년 밀집지역 등 일제 단속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지난 1일 실종아동과 가출 청소년 단속을 위해 관내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청소년 밀집지역, 무허가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신규 입소 및

시설 호적 발급자의 유전자 지문을 채취하고 부모나 가족에 대한 DNA·지문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김제경찰은 임금착취와 학대·불법 감금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관객이 직접 퍼포먼스에 참여해 높은 호응을 받은 '춘향시대 속으로'.

### 춘향제 폐막 "전통축제 진수 보여줬다"

전통문화축제인 '제82회 춘향제'가 4개 부문 29개 행사를 끝내고 지난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열씨구, 춘향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춘향 주제의 상징성을 집중 조망해 전통, 예술, 놀이, 체험이 함께하는 전통 행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숙선 위원장의 축창 개막선언과 1000여명의 소원 청사초롱, 요한의 유등, 풍등, 요천변의 경관 조명이 동시에 불을 밝혀 환상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광한루원에서 열린 '춘향시

대 속으로'는 중심프로그램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하계재난, 사포 생일잔치, 월매집의 서민풍류, 민속장터 등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로 마련된 춘향시대가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광한루원 잔디밭에서 치러진 '춘향제향'은 제한의 진정성과 정체성을 확인했다. 방자 체험마당에서는 45여 개 부문에 이르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려 연일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